

무기력증에 빠진 호남 정치권

‘포스트 DJ’ 동력 잃고 삼분오열

대통령 선거가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치사에서 중심을 차지했던 호남 정치권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정치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DJ) 이후 열린우리당, 민주당, 무소속으로 삼분되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선 정국의 외곽을 맴돌고 있다.

우선, 지난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타고 국회에 진출한 열린우리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14명에 이르렀지만 지난 3년 동안 별 다른 정치적 비전 및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의욕만 앞선 초선 의원들과 정치적 부재의 재선 이상 의원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의 정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민주당 독점 체제를 배격하고 정치 개혁을 통해 호남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은 공염

우리-민주-무소속 갈려 정치공백 초래
비전·정치력 없이 대선정국 ‘조연’ 전략

불에 그쳤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인 평가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광풍에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국회로 보내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마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민심을 대변하듯 현재 열린우리당 당적을 보유한 의원은 17대 국회 출범 당시의 절반인 7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17대 총선에서 몰락했던 민주당도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호남 민심을 담보로 삼았을 때와 달리 정작 당의 핵심인 현역 의원들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은 전문

성과 성실성 측면에서는 자타가 인정 하지만 정국 타개 능력 등 정치적 리더십에서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지난 4·3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출마하지 못한 것은 민심과 당심을 장악하지 못한 빈약한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결국,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원들이 당을 끌어가기 보다는 실려 가는 형국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호남 정치권이 모태가 되는 대통합신당 창당이라는 꿈을 실현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도 6명에 이르지만 대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범여권 통합 문제가 교착 상태를 거듭하자 일부 탈당 의원들은 18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호남 정치의 미래와 대통합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활로를 찾기보다는 정치적 진로를 둘러싸고 서로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DJ 이후 호남 정치권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면서 상당한 동력을 잃은 데다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어 대선 정국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부족은 호남 정치의 공백을 더욱 깊고 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또또사랑 가족축제 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제7회 또또사랑 가족축제 여성 마라톤대회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왼쪽에서 네번째)가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첫번째)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李-朴 ‘경선 룰’ 배수진

강대표 중재안 당 분열 위기 분수령 될듯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룰’ 문제를 둘러싼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진영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 내부에서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재섭 대표가 급중중 경선 룰 중재안을 제시한 뒤 양 주자 진영의 반응과 관계없이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양측은 “분열위기를 각오하고서라도 경선 룰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전체 선거인단 20만명의 20%(4만명)를 차지하는 여론조사 반영방식과 관련해 박 전 대표측은 “20%”라는 비율을, 이 전 시장측은 “4만명”이라는 숫자를 각각 고집하며 불퇴전의 각오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6일 출입기자들과 청계산을 오른 자리에서 경선 룰 논란과 관련, “경선 룰 논란의 시작은 당 혁신안으로, 그때부터 ‘8월-20만명’안이 확정될 때까지 내가 세 번이나 양보했다”면서 “이렇게까지 됐으면 공당이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당이 원칙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자꾸 원칙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 문제가 많다”며 20% 입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을 분명한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사무실인 종로구 견지동 안국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을 위해 (박 전 대표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면서도 중재안과 관련해선 “강 대표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중재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

심과 당심 ‘5대5 비율’ 규정을 준수하려면 4만명 안이 수용돼야 합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양 캠프 인사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개인설명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박 전 대표측 김재원 의원은 “여론조사 반영방식과 관련해선 지난번 경선 룰 할때 이미 논의가 끝난 사항이다. 그 원칙을 자꾸 깨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 박영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측에서 자꾸 유출투표수의 20%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무근이다. 합의가 아니라 추후 논의키로 이뤄졌던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양측의 이런 주장을 충분히 감안해 급중중재안 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중재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양 진영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중재안 성사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제기되면서 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양측 모두 또는 어느 한 쪽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당은 4·25 재보선 참패 직후 때와 마찬가지로 당이 제2의 지도부 총사퇴론에 휩싸이면서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당 일각에선 강 대표가 중도하차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안 거부시 강 대표가 물러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비판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의원들이 말하는 호남 정치 현주소

“DJ라는 큰 우산에 안주
역량 제대로 못 키웠다”

서갑원 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서갑원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대선 정국에서 호남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호남의원들의 ‘준비되지 않은 정치력’을 제기했다.

호남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DJ라는 큰 우산에 안주하면서 제대로 된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신진 정치인들도 급변한 정치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열된 호남 정치권이 미래를 위한 대응적인 화합보다는 정치적 현실에 매몰된 반복적 행태를 보인 점도 현재의 대선정국에서 무력감을 불러 일으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호남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대선 정국에서 대통합의 길을 열어 정권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역량과 비전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호남지역 정치인들에는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DJ 이후 공백 메우기
최소한의 시간 더 필요”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호남 정치권의 역할 부재론’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시간의 문제’를 내세웠다.

호남 정치권의 분열은 역할 부재론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DJ 이후의 정치적 공백을 메워가기 위해서는 호남지역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또한, ‘전북 정치권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원기, 정세균, 정동영 의장 등 전북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여당의 핵심 세력이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지 못했으며 광주·전남 정치권과의 단단한 연대를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호남 정치권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통합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특히 호남 지역 정치인들이 이번 대선과 차기 총선을 치르면서 정치적 자생력을 키워나가면 DJ 이후 호남 정치권의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세력 통합해야
호남정치 제자리 찾을 것”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선 정국에서 호남 정치권이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원인을 ‘호남 정치권의 분열’로 정의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호남 정치권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하면서 호남 정치의 공백이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분열된 호남 정치세력이 주류 세력을 형성할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의 정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여기에 DJ의 공백을 이를 만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없었다는 점도 호남 정치의 공백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호남 정치권의 미래에 대해 최 의원은, “반(反)한나라당-비(非)노무현의 근간은 결국 중도개혁세력으로 정의된다”며 “중도개혁 세력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분류를 형성하면서 분열된 호남 정치권도 다시 결집,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2007 KB National Bank Star Tour (2nd Round) tournament. It features a scenic view of a golf course with a large green fairway and a clubhouse in the background. The text includes the tournament name, dates (May 9-12, 2007), location (Hamyeong Dainestee CC), and sponsors (KB National Bank, Korea Women'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It also lists the prize and a note that gallery access is available during the tournament period.